

지역문화 정보화의 방향과 과제

이 해 준*

목 차

- | | |
|---------------------|--------------------------|
| 1. 머리말 | (1) 「문화재 중심」 정보화의 한계 극복 |
| 2. 지역문화자료의 성격 | (2) 자료의 구조화와 지역 특성 부각 문제 |
| 3. 지역문화 정보화 필요성 | (3) 기초자료 확보와 자료뱅크 운용 문제 |
| 4. 지역문화 정보화의 방향과 과제 | 5. 글을 맺으며 |

1. 머리말

흔히 21세기는 문화 경쟁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세계의 '지구촌'화 경향은 경제·군사적 경쟁보다는 각국간의 다원적 협력·이해 관계를 기반하는 문화권역화 체제로 나아가고 있다. 국가간 경쟁은 한 나라가 국가이미지를 바탕으로 창출하는 문화적 부가가치에 의해 크게 좌우되고 있다. 지역간·국가간 교류 및 협력도 경제중심에서 사회·문화분야 등 다방면으로 확대되고, 특히 문화부문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어 가고 있다.

문화체육부는 지난 1997년을 문화유산의 해로 설정하고 우리 문화유산 "알기", "찾기", "가꾸기"라는 목표로 내 걸었던 적이 있다. 우리의 문화정책이 대체로 가꾸고 지키는 수준에 국한된 것에 아쉬움을 가졌던 필자는 '문화유산의 해'에는 적어도 복원이나 보수같은 가치적이고 외형적인 것보다 그 속에 담긴 전체의 모습을 읽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했었다. 그러나 나타난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아마도 '알기'나 '찾기'는 예산없이도 가능하다고 보아서인지는 모르지만, 문화유산은 보고, 느끼고, 챙기는 사람의 가슴 속에서 그 가치가 재생되는 자원이다. 그러기 위하여는 당연히 교육과 정보활동을 매개로 그것이 활성화되어 "의식있는 알기, 찾기, 가꾸기의 주체들"이 성장되어야 가능한 것이었다.

본 주제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구분, 대비시켜야 할 문제는 대개 두가지 방향인데 그 첫째는 <의식>와 <자료>의 문제이고, 둘째는 <연구>와 <활용>의 측면이다. 첫째의 문제는 물론 지역문화를 어떻게 보고 이해할 것이냐라든가 자료가 얼마나 철저하게 정리되었느냐

* 공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하는 원론적인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측면을 보는 시각들이나 대안들은 매우 다양하고, 또한 발표자가 아니더라도 이에 관하여 이상적인 지향점들을 지적해 별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으리라고 본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는 현실적 여건이라는 제한 요소가 수없이 존재한다는 사실이고, 어쩌면 우리의 의식과 노력보다도 더욱 큰 몸짓으로 우리 앞에 버티고 있다. 그리고 전문가에 의하여 연구된 결과들이 어떠한 형태로든 지역민들에게 되돌려져야 하며 그것은 가능하다면 학자들간의 탁상토론이나 키 재기라는 차원을 넘어 지역 주민이나 대중에게 효율적으로 활용될 “상품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본다.

한국문화 전반적 상황이 이러한 상태에서 지역문화 자료의 경우는 여러 형태의 열악한 조건 속에 방치되어 있다. 그리고 문화의 세기를 맞는 현대사회인들의 문화정보 요구가 점차 증대됨에도, ‘지역문화’의 측면에서는 이를 수용하고 대응할 적절한 방향을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본고는 바로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한국에 있어서 지역문화연구의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문화정보로서 활용하는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과제들을 표출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다. 정보화 작업에 앞서 우선 그 자료가 되는 ‘지역문화’의 성격과 정리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어서 문화정보화의 기본방향과 대상자료의 범주 문제를 포함한 정보화의 과제와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여 보기로 하겠다.¹⁾

2. 지역문화자료의 성격

각 시대 각 지역의 문화는 그 문화가 생성되는 과정에 따라 서로 다른 특징과 개성(전통)을 갖게 마련이다. 그런데 이제까지 한국사, 한국문화연구는 대부분이 중앙·지배권력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정치·경제·군사·외교·행정 등 제도변화나 인물·사건중심의 이해에 집중한 경향이였다. 더구나 중앙의 관찬기록에서 확인되는 지방기록들의 내용도, 보편적인 특성이라기 보다는 예외적이거나 중앙지배층의 시각에서 왜곡된 것일 경우가 많았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지역민이나 지역의 역사·문화상은 사상될 수밖에 없었고, 많은 연구들에서 지역사·지역문화는 중앙 중심의 선입관과 가치평가에 의해 올바른 의미를 인정받지 못했다. 지방의 문화는 때로 보편성의 차원에서 중앙의 그것과는 다른 ‘별종’이거나 ‘아류’정도로 치부하기 일쑤였고, 심한 경우는 전문연구자들마저도 마치 ‘돌연변이’나 ‘보물찾기’식의 관점을 가짐으로써 이들 자료가 지난 본질을 혼돈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서울 중심의 중앙문화·지배층 문화를 보아온 시각으로 지역문화자료를 보게 되었을 때, 그리고 전제한 바와 같은 ‘개성의 인정’이 전제되지 않았을 때,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할 지역의 자체성장과 발달 배경은 무시

1) 이 글은 98년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국제학술회의(98. 11.5-7)에서 필자가 발표한 내용을 다시 정리한 것임.

되기가 십상이다.

문화란 인간이 자연 또는 사회배경들과 부단히 접촉하면서 형성한 생활능력의 총체이며 그것을 가능하게 한 사회적 토대 위에서 배태된 결과물이다. 따라서 한 사회의 문화적 전통이란 그 문화 주체가 자신들의 역사진행 과정에서 선택하여 자기화 한 「가치관」인 동시에 「생명력」이라고도 할 수 있다. 과거의 지역문화와 그 전통은 현재의 지역문화나 의식에 크게든 작게든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지역민들이 지역민으로써 느끼는 향토적 동질성(지역성)·공감대의 기반인 것이다.

각 지역에는 이같은 지역문화사를 연구하고 정리하는 연구자(향토사연구자)와 기관들(시·군, 문화원, 향토문화연구회, 대학의 지역관련 연구소)이 많다. 이들은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지역문화의 기초자료들을 연구지, 향토지, 문화안내집 등으로 발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자료들은 특별한 관심자나 연구자 중심으로 공개되고 있거나, 극히 일부의 자료들의 평면적 형태로 일반인들에게 던져져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자료의 정리와 수집에 있어서 또하나 유념할 부분은 자료의 범위가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기존의 지역문화 자료나 그 정리내용은 대개 전통적으로 행해왔던 고고·미술사 자료(=문화재)에 집착하는 경향이다.²⁾ 사실 역사와 문화는 정확성과 객관성을 그 생명으로 한다. 또 이를 증명해 내기 위한 방법과 대상들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이 다양하고 복잡한 역사의 대상들을 정리하여 자신들의 주체적 역사로 재 구성하기 위하여는 다양한 자료의 확보, 그리고 올바른 인식방법이 동원될 필요가 있다.³⁾

아울러 지역문화를 올바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는 지역에 남아 전해오는 傳承資料들을 충분히 정리하고 연구하는 작업이 요망된다. 지역자료의 지속적 확보과정이나 확보량은 해당 지역문화연구의 수준을 결정한다. 다시 말해서 한 지역의 문화성격을 규정할 만한 기초자료와 소재들이 과연 양적으로 얼마만큼 축적되어 있는지, 또 그것들이 얼마나 정확하고 완전하게 표집되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의 문제는 지역문화연구의 성패와 직결되어 있다. 이들 기초자료들의 광범한 수집이 선행된 뒤에 그 자료중 어느 것이 지역적인 특수성을 반영하고, 또 어느 것이 보편성을 지닌 자료인가를 구분해 낼 수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역문화 이해의 방법론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지역문화 자료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하여는 누구나 중요하게 인식하지만, 실제 지역사연구의 범위나 과제, 혹은 그 방법론에 관하여는 아직도 이렇다할 학계의 방향정리가 되지 않고 있다. 현재 각 지역의 대학부설 연구소나 학과를 중심으로 지역사·지역문화를 연구하려는 의지를 지닌 연구가 매우 많아졌지만, 정작 지역문화연구의 방법론이나 방향을

2) 물론 이중 유적과 유물자료(문화재)가 지역문화를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대상임에는 틀림없으나, 이는 지역문화 자료에 대한 인식폭이 좁은데서 비롯된 것이고 오히려 이점이 지역정보화 발전에 장애가 되었다고 생각되어지기도 한다.

3) 김정호·이해준, 1992. 『향토사연구의 이론과 실제』(향토문화진흥원)

점검하는 기본적인 접근은 아직도 적극적이지 못하고, 학계의 논의 역시 정작 지역문화 현황(현장감)에 둔감한 실정이다.

끝으로 지역문화 자료는 ‘왜 그 시대에 그 지역에서 그러한 특수한 역사와 문화내용들이 만들어졌는가’를 분명히 하였을 때 자원으로서의 상품성을 가진다. 어디에나 있는, 그리고 아무때나 있어왔던 문화자료는 우리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⁴⁾

민속, 구비자료의 경우도 대개 민속학분야에서 그들 나름의 연구방식으로 정리함에 따라 이들 자료들이 관심권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과연 그것들이 지방의 해당시기 역사해석에 얼마만큼 밀착되었느냐 하는 문제는 별개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지방의 문화사적 특성이 보다 완벽하게 정리되기 위해서는, 문화적인 유형 무형의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 「시대와 지역적인 배경」의 문제가 보다 크게 주목되고 재해석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우리의 역사가 대체로 지배층이나 중앙중심, 문화재 중심으로 연구되었던 점을 지양하고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역민들의 뜻뜻한 생활문화사⁵⁾ 자료들도 포괄적으로 자료화 되어야 한다. ‘기록되지 않은 역사자료’에 대한 이러한 의식이 전제되었을 때, 자연환경 및 생활사자료, 근대·현대의 사회사자료도 정리가 가능할 것이고, 지역개발이나 관광문제, 그리고 본고에서 주로 다루어 보고자 하는 지역문화 정보화 문제도 구체적인 가시권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3. 지역문화자료 정보화 필요성

한국의 지역문화가 올바른 가치를 인정받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전달되기 위하여는 정보화의 기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즉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와 인식이 확대되기 위하여는 ① 기초자료의 수집 정리 ② 원 자료의 기초적 연구심화 ③ 자료의 전산화를 통한 확산이라는 단계적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의 상태에서 이같은 이상과 단계론은 과연 무슨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가? 다시말하면 몰라서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4) 이해준, 1996. 「성터 유적과 향토사연구」, 제10회 향토사연구 전국학술대회 주제발표문, 96. 12. 예컨대 “성터유적” 연구, 발굴조사 보고서들은 수없이 많다. 그런데 이들은 대개가 대학의 연구소나 박물관같은 기관에서 전문연구자들을 참여시켜 만든 성과물이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거의가 유사한 항목 구성으로 일관된다. 예컨대 지리개관, 연혁, 성곽과 성축구조, 시설배치, 출토유물 등이며 이 중에서 성곽자체에 대한 구조적인 내용이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물론 이를 통하여 해당 성터의 시대나 구조, 성격은 분명하게 정리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전문연구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다는 것이고, 예를 든다면 그 성터유적과 당시의 지방세력과는 어떠한 관계에 있었는지, 성터와 주변의 유적들과는 어떠한 상관성을 가지는지, 성곽의 기능과 운영의 실상은 과연 어떠한 것인지, 이곳에서 살다간 인물들의 역사와 성터를 보는 주민들의 의식은 어떤 것이었는지, 나아가 지명이나 설화 민담속에 배인 성에 대한 지역문화의 모습들은 찾을 길이 없는 것이다.

5) 줄고, 1995. 「역사기록과 생활문화자료」, 『향토사의 길잡이』, 한국향토사연구협의회(수서원).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대체로 이같은 현상이 초래된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요인은 역시 대부분의 전통문화 연구자들이 가지는 정보, 전산기술에 대한 무관심과 효율성에 대한 활용 기대 방기가 주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는 정보화사회로 불려진다. 사회 전 부문에서 정보화의 기치가 마련되고 있으며, 문화정보의 경우도 결코 이에서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한국적 현실에서 정보화에 매우 둔감한 분야가 바로 지역문화 연구자나 종사자라고 보아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즉 정보화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무엇이 지역문화 정보화인지? 또 과연 무엇을 어떻게 정보화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 대안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나아가서는 “왜 정보화해야 한다고 하는 것인지?” 혹은 “정보화를 통하여 무엇을 얻을 것인지?”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는 경우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21세기에는 문화와 산업이 결합하여 이른 ‘문화의 산업화’내지 ‘산업의 문화화’라는 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문화적 부가가치의 경제적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추세에서 우리 문화의 세계문화적 상품화가 이루어지려면 기법상 세계국가들과 공유할 수 있는 정보체제의 정비, 즉 정보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통한 우리문화의 소개·홍보에 주력함으로써 한정된 문화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들은 가능하다면 비교적 지역 이미지와 관련하여 긍정적 인지도가 높거나, 그 지역에만 있는 것, 지역의 특성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자료)을 우선적으로 적극 개발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고 본다. 예컨대 탈과 탈춤이라는 문화자원이 있는 지역의 경우 유적지와 유물을 관람시키는 것은 물론, 이를 관광상품(관광기념품)으로 개발한다든가, 이벤트 행사로 탈축제를 개최하거나 지역 상징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금산의 인삼과 강진·이천의 도자기, 진도의 진도개, 정선 아리랑 등등은 그러한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다. 그런가하면 관광문화 거점으로서 한국의 대표적 문화를 상징하면서 지역의 발전을 연계하는 신라문화촌, 백제문화촌, 가야문화촌, 남도문화촌, 제주문화촌 등의 지역문화 상징 문화촌을 조성하여 문화 관광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충분히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지역문화가 올바른 가치를 인정받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전달되기 위하여는 정보화가 시급하다. 지역문화의 정보화는 지역 문화를 효율적 알리고 활용하며, 그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이다. 정보화 작업은 바로 그러한 예비적 단계의 자료 정리이자, 일반인들의 기호와 수요를 평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고 나아가 이를 토대로 지역 개발 전략이나 문화정책 입안, 교육자료로의 활용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최근들어 지역별로 문화관광 자료들이 매우 다양한 형태로 제작·배포되고 있고, 선

협적인 기행가나 르포라이터들의 문화길잡이들이 책자로 제작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아주 이지적이거나, 아니면 관공서에서 제공하는 관광, 교통, 행사, 숙박, 음식점 등으로 가장 원시적인 정보가 주류를 이룬다. 박물관이나 시군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정보작업의 목적도 문화유산의 효율적 관리에 두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개 한국사회에서 이루어진 지역문화 정보화의 내용은 문화재, 혹은 문화관광 부면에 집중되어 있고, 그 목적 및 의의는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 정보 접근이 용이하게 하며, 사이버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자라나는 세대 및 일반인, 타지역민에 대한 해당지역의 문화를 이해시키고, 지역발전과 연계시켜 문화사업 및 관광산업 등 기타 연관 산업 진흥도 기대

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처럼 지역문화정보의 구성이 ‘문화재의 안내와 해설’, ‘관광산업 발전’ 과 연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는 그런 사례는 문화정보에 관한 한 그래도 한국사회에서 앞서 간다고 생각되는 경북과 경주의 경우에서도

- 동국대 관광정보센터 : 경주의 관광, 숙박, 음식점, 교통 등
- 한국관광공사 관광정보 : 관광지, 문화재, 시설, 레저, 문화행사, 쇼핑, 숙박, 음식점 등
- 경북도청 : 문화재검색, 특산물 소개
- 대구경북종합정보센터 : 행정기관, 산업, 교육, 관광 등
- 문화재관리국 : 경주문화재 소개, 검색서비스
- 경주넷 : 사적 및 관광명소 안내
- 동해넷 : 관광유적지 안내
- 대성조각 : 석굴암과 관련된 역사, 과학, 연구 등
- 한국터치넷 : 경주시의 국보, 보물, 기념물, 교통, 숙박, 특산품 안내
- 국립경주박물관 : 박물관소개, 전시유물, 유물관리, 조사 연구, 교육프로그램, 특별전
- 천년고도 경주 : 유적답사코스, 관광, 레저, 주제어 검색서비스(동영상, 지도)
- 경주텔 : 문화재 정보, 관광레저 정보, 유적 답사 코스

등으로 아주 많은 정보매체들이 작동되고 있다. 물론 세부적으로 보면 내용상 단순 문화재 자료 해설에서부터 이를 보러 오는 관광객을 위한 부수 정보, 예컨대 교통, 숙박, 음식, 특산품 등이 추가되고 있고 검색 서비스가 마련되는 등의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다. 경주텔의 관광/문화 정보체계의 사례처럼 <문화재 정보>, <관광레저 정보>, <유적 답사 코스> 등과 같은 아이디어도 주목되고 있다.⁶⁾ 그러나 이 많은 종류의 인터넷과 PC통신망이 거의 대동소이한 체계와 내용을 중복적으로 담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인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4. 지역문화 정보화의 방향과 과제

지역정보를 전산처리하는 시스템 중에서 가장 포괄성을 가진 흔히 GIS로 불려지는 지리 정보 시스템은 지도를 전산처리가 가능하도록 수치로 환산하여 그 위에 자연 및 사회·경제 정보를 체계적으로 입력해서 각종 목적에 맞게 활용, 분석하는 기술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자연환경, 농림, 수산, 토지, 건축, 도시, 시설물, 교통, 문화복지, 재난 재해, 환경 등에 실용화가 준비되고 있다고 한다.

사실 필자는 지역문화 정보도 이 GIS 체계속에 편입할 수만 있다면 더욱 큰 부대 정보와 활용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주장하고 싶다. 그러나 이는 본 주제와 또다른 방향의 설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다만 문화자료의 측면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현실적 문제에 국한하여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대체로 한국사회에서 지역문화 정보체제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배경을 전산학자들은

- ① 투자 부족
- ② 비 전문가들이 구축한 미흡한 정보체계, 정보생산자의 참여 부족
- ③ 국내용 정보 서비스에 국한
- ④ 정보자료 생산기관 간의 공조체계 부족
- ⑤ 주민과 기관의 인식 결여

등이 지적되고 있는 것 같다. 이 중에서 예산지원과 투자의 문제가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이는 의식의 확산과 정보활용의 양이 증대하면 자연 해소될 성질의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나머지의 문제들도 그 자체에 해결방안을 지니고 있으니, ① 기관간의 협의체 구성 및 연계 서비스 모색, ② 외국어 서비스 준비, ③ 데이터베이스 및 상업성 추구, ④ 학계의 헌신적인 참여, ⑤ 기관 및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가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이같은 전산학의 기술적 문제와 별도로, 지역문화 자료를 생산하고 처리하는 필자의 시각에서 지역문화 자료의 체계적인 정보화가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대개 (1) 지역문화를 보는 시각과 대상 폭의 협소, 규격화 (2) 자료공급원과 조직원 사이의 소통문제 (3) 자료 조사, 기초 정보 생산의 허술함 등이 극복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음에서 이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하겠다.

6) 함경수, 1998. 「경주문화유산의 정보화 현황 및 경주델의 정보체계」, 경주문화엑스포 기념 학술회의, 『21세기 문화전망과 대응전략』 (신라학연구소).

(1) 「문화재 중심」 정보화의 한계 극복

먼저 제기되는 문제점은 지역문화를 보는 시각과 대상 폭의 협소, 규격화에 있다. 정보화 되어야 할 지역문화 자료는 비단 문화유산류의 유형적인 문화재에 국한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전제한 것처럼 지역문화는 그 자체로 종합적인 구도를 가지고 있고, 이를 체계화하여 차별적인 문화특징을 구별하게 하므로서 문화상품으로서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지역문화 정보의 자료 중에는 지역에 관계되는

- ① 과거 역사의 지적인 자산이나 유산
- ② 공간적 위치에 관련된 모든 정보와 이와 관련된 속성
- ③ 지역사회에 관련된 새로운 연구결과, 새로운 사실
- ④ 지역의 고유한 정보와 각종 생활상

등의 총체적인 자료가 함께 수용되어야 하며, 이를 조직화하는 정보화 기술이 필요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컨대 특산물, 토속음식, 자연레저(전원, 휴양림, 백사장, 낚시터 등) 같은 정보들도 이에 속한다. 만약 이러한 문화정보 체계가 너무 광범위하여 우선 문화재 중심의 정보체계를 만들 경우라 하더라도 관련 자료들이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본다면 하나의 유적(문화재)를 대상할 경우에도 먼저 유적대상을 폭넓게 역사유적, 고고학유적, 미술사유적, 역사유적, 인물유적, 민속유적, 무형문화재, 생활문화유적, 근·현대사유적 등등으로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유적의 경우에도 자료 내용은 미술사적 해설(사진, 도면 포함) 이외에 유적과 관련되는

위치 / 지리(배경) / 인물 / 역사 / 관련 유적 / 설화 / 전설
/ 교통편(숙박) / 연구자료 / 제보자·안내처

등이 함께 정보자료로 이용될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럴 때 단순한 고고·미술(문화재) 중심의 정보체계가 아닌 지역문화자료서의 의미와 차별성이 생긴다는 것이다.

(2) 자료의 구조화와 지역 특성 부각 문제

한편 역사가 흔히 “勝者의 기록물”이라고 일컬어지듯 이제까지의 한국문화와 역사는 대부분이 중앙·지배권력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제도변화나 영웅적인 인물이나 특수사건 중심의 이해에 집중되었다. 이에 더하여 우리의 전통

문화나 역사에 대한 이해의 시각이 흥미위주이거나 호기심, 아니면 지적 충족감을 채워주는 것으로 인식되고 대상도 고고학이나 미술사부문에 너무 편중되므로서 지역문화의 총체적인 파악이나, 그 올바른 의미가 외면되었던 것이 현실이다.

지역문화는 단순히 지역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을 주체로 하는 문화사, 종합사, 생활사”이어야 한다. 지역문화 정보화는 지역적 특성을 규명하고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 시대에, 그 지역에서, 그들만이 만들어 낼 수 있었던 특수한 내용’의 자료를 중심으로 구조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는 자료 생산자(공급원)와 프로그램자 사이에 의사 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져야만 기술적으로 가능한 문제이다. 물론 지역문화 정보화는 기술적 차원의 문제로 필자같은 문외한이 그 문제를 논위하기는 어렵다. 다만 자료공급원(생산자)과 조직원 사이에서 기초자료에 대한 이해에서 편차가 생기면 곤란하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문화 자료가 정보화될 때 우리가 유의해야할 몇가지 전제가 있다.

- 첫째는 지역의 문화를 지역민의 주체적 시각으로 정리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 둘째는 각기 돌출된 문화들을 상호 연결, 종합하는 안목
- 셋째는 수집된 자료를 지역문화 자원으로 재활용하려는 의지와 아이디어를 공유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⁷⁾. 지역문화 특성과 상품성이 있는 테마기행의 착안이라든가, 유적과 관련된 관광레저 자원과 코스의 기능적 배분, 각종의 유인아이디어 개발 등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다.

(3) 기초자료 확보와 자료뱅크 운용 문제

지역문화 정보체제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배경을 전산학자들은,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의식이 부족과 이에 따른 저조한 활용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니 투자가 안되고, 그런 가운데 비 전문가들이 구축한 정보체제는 미비될 수밖에 없었다. 자료 조사, 기초 정보 생산의 허술함에서 비롯되는 것이 이같은 부실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즉 지역문화의 정보화 성패는 바로 기초자료의 전문성과 객관성, 량적인 결집인 것이다.

바로 이같은 자료의 생산자이자 공급원은 각 지역마다 적지 않다. 바로 본절에서는 이들을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관, 자료뱅크를 운용하자는 주장을 하고자 한다. 이같은 지역문화사를 연구하고 정리하는 연구자(향토사연구자)와 기관들(시·군, 문화원, 향토문화연구회, 대학의 지역관련 연구소)이 많다. 또 각 시군 단위로 지역문화자료를 전시하는 자

7) 이해준, 1991. 「조선시대 지방사자료의 수집과 정리」(국사편찬위 사료조사위원회 특강).

료실·민속관·특수 박물관 등도 적지 않다. 이들은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지역문화의 기초 자료들을 연구지, 향토지, 문화안내집 등의 자료집으로 발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자료들은 특별한 관심자나 연구자 중심으로 공개되고 있거나, 극히 일부의 자료들의 평면적 형태로 일반인들에게 던져져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문화에 대한 본질적이고 구체적인 이해도 불가할뿐만아니라, 각 지역문화가 지닌 특수성(상품성)을 알리는 데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바로 이점이 지역문화 정보화의 현실적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는 것이지만, 현재와 같이 지역문화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열악한 상태에서는 바로 이들 지역연구자와 자료관류를 지역문화 자료센터로 운영하고, 이곳에서 생산, 조직되는 자료를 정보화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해당지역의 전통문화와 의식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는데 매우 유용한 기반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상징적인 기구이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에서 문화예술운동의 태틀일 수 있는 이 기구들이 보다 활발하게 기능만 할 수 있다면 많은 과제들이 동시에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오늘날의 박물관(자료관)은 단순하게 조상들이 남긴 문화유산들을 수집·보관·전시하는 고전적인 의미의 '보물 수장고'에서 점차 정신적인 휴식공간 혹은 문화적 모임의 장소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기능을 강화해 가고 있다. 과거의 박물관이 정지된 모습이었다면, 앞으로의 발전된 모습은 현재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곳, 문화예술 공간의 중심체로 다양한 변모를 보여준다.

이들 기구들은 내용상 대개 다음과 같은 몇가지의 기초적 임무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즉 ① 자료의 수집과 정리, ② 효율적인 전시와 보존관리, ③ 지역자료의 연구, 조사활동, ④ 사회교육활동이 그것이다. 자료의 수집은 무계획적·임기응변적이기 보다 사전 설계에 의한 체계적 수집이어야 하며, 이는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인력의 배치로 달성될 수 있다. 또한 자료의 체계적 정리와 살아있는 전시로 관람자들을 유인하는 것도 전문 인력이 할 수 있는 일로서, 이는 연구조사활동 및 사회교육활동⁸⁾의 축적을 통해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 과정은 그대로 지역문화 정보화와 직결된다. 지역문화 센터로서 지역자료관들이 담당해야할 과제들을 너무나도 많다. 지역문화조사,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운용, 자료의 주민 공유 시스템 마련 등이 그것이다. 예컨대 인터넷 교양 강좌로 지역문화와 향토에, 지역문화연구의 체계와 절차, 지역문화사 정리의 필요성, 지역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등을 개설한다던가, 지역문화자료를 특강의 형태로 해설하고 탐방하는

8)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6호. 이와 관련해서는 이해준, 1997. 『지방교육자치와 지역교재의 편찬과제』(제8차 전국 향토사연구 학술심포지움) 참조.

- | | | |
|--------------|------------------|------------|
| ○○지역의 역사 | ○○지역의 고고유적 | ○○지역의 불교유적 |
| ○○지역의 역사유적 | ○○지역의 민속놀이 | ○○지역의 생활문화 |
| ○○지역의 자원, 환경 | ○○지역의 민속신앙 | ○○의 산과 강 |
| ○○지역의 전통마을 | ○○지역의 구비전승 | ○○지역의 근현대사 |
| ○○지역의 지역축제 | ○○지역의 향토사 교육의 실제 | |

등의 지역문화 강좌 개설도 가능할 것이다.⁹⁾

5. 글을 맺으며

이상에서 필자가 생각하는 지역문화 정보화의 과제에 대하여 정리하여 보았다. 물론 이러한 필요성이나 문제점을 몰랐기 때문에 과제가 해소되지 않았던 것은 아닐 것이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과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원할하게 진전시키기 위하여는 예컨대 ‘전문인력’ 문제라든가, ‘예산’의 문제, 그리고 지역민들의 ‘문화에 대한 의식’ 등등의 기본적 조건도 논의의 대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여러 논의에 대하여 필자는 참으로 우리가 현실감없는 배부른 주장들을 아 적도 하고 있다는 자괴감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이는 마치 우리가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데 남들이 역사연구를 위하여 場을 마련하여 주기를 바라는 것이나, 아니면 제 반 조건을 마련하여 주면 나도 할 수 있다는 것과 다름아니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문화의식도 우리가 깨우쳐야 하고, 제반 여러 조건들도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얻어내야 할 도전의 대상인 것이다.

최근 들어 지역문화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은 전에 비할 수 없이 커져 가고 있다. 가히 역사, 문화관련 서적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이러한 동향(서적, 방송)들은 대체로 흥미와 교양이 전제되는 역사기행류, 아니면 특정한 사건이나 인물을 새롭게 재조명하는 수준, 그런가하면 생활사나 역사추리, 역사신문같은 다양한 대상과 전달 방식으로 일반인의 접근을 유도한다.

이같은 현실에 대하여 필자는 일편 다행스러움과 함께, 일편으로는 위기감과 불안감을 떨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즉 문화연구자들이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를 어떻게 수용하고 발전적으로 승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준비와 대응은 실로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본고에서 줄곧 강조한 지역문화자

9) 이해준, 1997. 「박물관의 현황과 문화교육정책」, 『교육철학』 제18집 (교육철학회).

이해준, 1997. 「지역박물관과 지역사 자료정리」, 『박물관학연구』 제2집 (대전보건대 박물관학연구소).

료의 수집과 정리, 그리고 정보화를 통한 접목은 그러한 경향을 선도할 아주 좋은 대안이라는 사실이다. 예컨대 문화유적에 대한 답사나, 역사·문화사 시민강좌의 확대, 관련 자료의 유형별 정보화 체제, 대중적 관심 주제의 공동연구 종합 등등은 그러한 사례들일 것이다. 이같은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을 때 잘못 인식되거나 축소된 우리 역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나 재발견, 수준높은 이해도 어느 정도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이해준, 1987, 「향토사연구의 현안과제」, 『한국학논총 12』(한양대 한국학연구소).
- 이수건, 1989, 「한국에 있어서 지방사연구의 회고와 현황」, 『대구사학』 20-21집(대구사학회).
- 이해준, 1991, 「조선시대 지방사자료의 수집과 정리」, 『국사편찬위 자료조사위원회 특강』.
- 김정호·이해준, 1992, 『향토사연구의 이론과 실제』(향토문화진흥원).
- 최두진, 1994, 「지역정보화 정책 및 사업실태 조사 보고서」(한국정보문화센터).
- 이해준, 1995, 「역사기록과 생활문화자료」, 『향토사연구의 길잡이』(수서원).
- 이해준, 1997, 「박물관의 현황과 문화교육정책」, 『교육철학』 제18집(교육철학회).
- 이해준, 1997, 「지역박물관과 지역사 자료정리」, 『박물관학연구』 제2집(대전보건대 박물관학연구소).
- 이해준, 1997, 「백제문화권의 지역축제를 통한 문화관광상품 개발방안 연구」(한국문화정책개발연구원).
- 손동철, 1998, 「정보화와 문화」, 경주문화엑스포 기념 학술회의, 21세기 문화전망과 대응전략(신라학연구소).
- 함경수, 1998, 「경주문화유산의 정보화 현황 및 경주텔의 정보체계」, 경주문화엑스포 기념 학술회의, 21세기 문화전망과 대응전략(신라학연구소).